육아정책 소식

'만 5세 공통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29일(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국무총리: 김황식)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만 5세 보육·교육 지원대상을 취학직전 1년의 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만 5세 보육·교육비 재원을 단일화하며,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만 5세 보육비 지원 업무를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2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22일 보도자료에서 2012년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을 공개 입찰한 결과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 시 ①금융기관 지점 접근도 등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②금융기관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확보, ③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정부 예산 절감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였다. KB컨소시엄은 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점을 추가 확보하고,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기존 수수료율인 0.36%보다 대폭 인하된 0.01%의 수수료율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아이사랑카드 소지자)가 동시에 3개사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개사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전환등록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기 사업체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복지부 및 KB컨소시엄은 금년 말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카드전환을 위한 전담 상담인력을 운영하여 7월 이후부터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카드 전환등록을 안내할 것이다. 또한 3만 8천개 어린이집 대상 추가 가맹계약을 접수하고, 만 5세아 공통과정 대상자 등 내년 신규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를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은 시행 1개월 전인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심보육환경 조성 계획 발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화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유아 생명 · 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서는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8,000여 개소 중 50%인 19,000여 개소만이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10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는 총 3,840건(사망 8건 포함)으로, 만 2~3세가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하며, 유아가 영아 보다, 남아가 여아 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29.5%인 1,020건이 점심시간 전후 시간대인 11:30~13:29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 자유선택놀이시간에 사고의 38.9%(1,495건)가 발생해, 교사의 각별한 주의 · 관찰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출 예정이다.